



Featuring the:

Suwon : **EcoMobility**
: **2013**
: **Congress Cities, Spaces and People**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ONE NEIGHBORHOOD
ONE MONTH
NO CARS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보고서

도시, 공간 그리고 사람

2013년 9월 1일 ~ 4일

Presented by



Hosted by





염태영 수원시장

저는 수원시장으로 취임 한 이후, 수원시를 ‘대한민국 환경 수도’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9월 수원에서 개최된 「생태교통 수원 2013 (EcoMobility World Festival 2013 Suwon)」은 주민참여에 기초한 협력적 리더십을 통해 세계 어느 도시에서라도 자가용 없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적 축제의 첫 주에 개최된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EcoMobility 2013 Congress)」는 전 세계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도시에서의 생태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이었습니다. 수원총회는 경험과 정보 공유, 토론,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생태교통의 중요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였고,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모니카 짐머만 ICLEI 세계 사무부총장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와 세계 본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에 전 세계 생태교통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 도시의 대표들은 국제무대에서 ‘도시, 공간 그리고 사람’ 이란 주제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사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생태교통을 도입하는 도시들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생태적인 이동수단과 대중교통을 연계하고, 자동차가 필수적인 지역에서는 카쉐어링 같은 교통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수원총회는 전 세계 교통전문가들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만남의 장이었으며,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미래도시 혁신의 모습을 함께 설계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제별 분과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의 우수사례들을 연구하였고, 생태교통이 실현된 미래도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메리 제인 오르테가 ICLEI 부회장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는 도시 및 교통 전문가들이 한자리 모여,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생태교통 의제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수원총회에서 소개되었던 정보와 세계 최초로 열리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을 보면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수원총회에서는 세계 각 도시들이 생태교통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수원선언 : 에코모빌리티 임펄스」를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차기 생태교통 총회에서는 수원총회의 성과를 기초로, 「2013 생태교통 수원 선언 : 에코모빌리티 임펄스」를 세계 각 도시들이 어떻게 정책의제로 수용하고, 발전시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한눈에 보기

Overview



수원총회는 걷기, 자전거와 수레, 대중교통 그리고 공유 교통시스템과 같은 이동수단들에 대한 통합적 관점과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에서 생태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적 리더십이 중요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미래세대 세션을 통해 현 세대가 미래세대 삶의 질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생태교통 의제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즉각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선언문을 공표하였다.

수원총회 참가자들은 도시들이 생태교통 의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원선언 : 에코모빌리티 임펄스」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에코모빌리티 임펄스」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될 것이다.

「에코모빌리티 임펄스」의 자세한 내용과 발표 자료들은 수원 총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clei.org/ecomobility2013>

참가자 구성

해외 37개 국가의 96개 도시를 대표하는 250여 명의 해외참가자, 국내 29개 도시에서 온 350여 명의 국내참가자, 총 600여 명이 이번 수원총회에 참가하였다. 지방정부의 대표, 비정부 기구(NGOs), 학계,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였다.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는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출하는 자리였다.

현재 전 세계에는 8억대의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교통 의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수원총회에서는 생태교통과 도시재생, 공공 공간, 혁신, 해법 등의 4대 주제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리더십, 사회통합, 건강, 미래세대, 생태교통의 실질적인 적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생태교통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세계 각 도시들이 생태교통을 공동의제로 선정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실천과제'로 재조명되었다.

수원총회의 하이라이트

4일 간의 수원총회는 2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 4개의 전체회의
-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 국제 청소년 토론회 : 생태교통과 미래세대
- ADB-GIZ-생태교통연맹 워크숍 : 비동력 이동수단
- 동아시아 저탄소 도시 포럼
- 혁신적인 이동수단과 함께하는 VIP 라이드



「생태교통 수원 2013」 속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EcoMobility 2013 Congress in EcoMobility World Festival



배경 : 행동하는 생태교통

수원 행궁동 지역 주민들은 한 달 동안 열린 「생태교통 수원 2013」을 통해서 마을과 거리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4,300여 지역주민들은 걷거나 다양한 생태적인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자동차 없는 일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주민들은 축제기간 동안 자전거용 트레일러, 2인용 자전거, 전기자전거, 벨로택시 등과 같은 혁신적인 생태이동수단을 이용하였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었던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열린 수원 행궁동은 생태교통 전문가, 정책 결정자, 도시계획가, 교통전문가, 기업가들이 도시에서 생태교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총회를 개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총회의 각 세션들은 참가자들이 생태교통마을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교통마을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수원 행궁동은 총회에 참가한 이들에게 생태교통으로 바뀐 마을의 모습과 총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미래도시에서의 생태교통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무대였다.

“이 페스티벌은 생태교통이 실현된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한 방식의 생활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한다.”

염태영 시장, 대한민국 수원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우리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도로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은 걸어야하고 보행은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길 페날로사, 사무총장, 8-80 Cities,
캐나다 토론토 | 생태교통 수원 2013 홍보대사

생태교통(EcoMobility)이란

걷기, 자전거, 비동력 이동수단, 대중교통 그리고 공유 자동차를 포함한 이동수단과 이 이동수단 간의 효율적 연계체계를 말한다.

동시에 이 체계에 친환경성, 사회적 통합성을 실현한 이동을 의미한다.

ICLEI, 2013



이클레이(ICTEI)의 생태교통 서비스

이클레이는 도시에서의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교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태교통사업을 시작하였다. 독일 본에 위치한 이클레이 세계본부, 각 지역 사무국 그리고 각 국가사무소를 통해서 1,000여개 회원도시들이 생태교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클레이는 회원도시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도시교통을 주제로 한 연수과정과 역량강화를 통해 관련지식 및 인식 증진 지원
- 각 도시의 도시교통 현실을 측정하고, 국제적·지역적 규모에서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안전한 거리, 공공 공간의 활성화,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
- 도시의 미래교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들의 포럼 등 기획 및 운영
- 성공적인 도시교통 사례를 국제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언론 매체와의 협력
- 회원도시들이 환경적으로 조화롭고, 사회적으로 평등하며,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교통 계획과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생태교통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사업들은 <http://www.iclei.org/ecomobility>에서 볼 수 있으며, ecomobility@iclei.org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테마 1 : 생태교통과 도시재생

Theme 1 : EcoMobility and Urban Regeneration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도시, 공간 그리고 사람’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아우르면서 도시재생, 공공 공간, 혁신, 해법 등을 총회의 4대 주제(Theme)로 설정하였다.



현재 도시들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동차의 과도한 사용으로 많은 부분 손상을 입었다. 사람들이 다니던 길은 어느새 자동차에게 점령당했으며, 문화유적지, 여가공간, 그리고 우리의 주거지역까지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다행인 것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자동차 소음과 오염원 배출을 줄이면서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도시를 혁신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에서 소개되었던 일본 도야마시, 사이타마시, 멕시코시티 그리고 「생태교통 수원 2013」을 개최한 수원시 사례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교통과 도시재생〉 세션에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여러 접근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일본의 도야마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통한 ‘압축도시(Compact Cities)’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도시 한 가운데 트램을 도입하여 자전거 공유시스템과 융합 체계를 만들면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융합교통시스템을 통한 도심 거주인구 증가(회복)이라는 사회적 현안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예술, 문화 영역과 결합하여 낙후된 도심을 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도시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사회기반시설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술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유교통을 통해서 손쉽게 도시를 재생할 수 있다. 일본 사이타마시의 경우, 전기자동차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자가용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지방정부의 정책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적절한 참여가 중요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원총회 참가자들은 공유교통과 생태교통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등 「에코모빌리티 임펄스」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지지하였다.

모든 발표자들은 편리한 대중교통, 보행자의 안전보장, 자전거 환승시설처럼 다양한 교통수단에 접근하려면 사람 중심의 공공 공간 확충이 우선과 제라고 입을 모았다.

독일의 프라이부르그는 오래 전부터 도시 공공 공간과 여가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1970년대 상업지역은 주로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대중교통, 또 다른 생태교통 이동수단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변화해 왔다. 프라이부르그는 지역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면서 도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행과 자전거를 위한 환경, 이들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질 좋은 공공 공간과 보행공간은
도시의 다른 어떤 교통 인프라
보다도 중요하다”**

브람반 오이젠, 교통개발정책연구원
중국(ITDP), China

생태교통을 통한 도시의 대중건강 증진

생태교통과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의 사상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수단의 선택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운동부족은 전 세계 사망원인의 4번째를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동을 통한 ‘운동’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걷기, 자전거 등 ‘활동적인’ 생태교통 이동수단은 사회적 교감을 확대하고 스트레스와 의료비를 경감시킨다. 건강 이슈를 생태교통 의사결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생태교통과 건강 두 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적인 이동방법이 강구된다면 대기오염 뿐 아니라 호흡기질환 같은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코펜하겐의 경험

1960년대 덴마크 코펜하겐의 스트뢰 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하였을 때, 오토바이를 탄 고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상점 주인들의 반대가 거셌다. 하지만 1.1킬로미터의 보행자 전용구간은 호기심 많은 보행자들로 가득 찼고, 상가의 매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보행자 전용구간은 계속 확대되었고, 현재 25만 여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매일 이용하고 있다. 보행전용 지역과 공공 공간을 확대하자 노상카페에 앉아 길거리 공연을 즐기거나 쇼핑하는 사람들도 많아짐으로써 공간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를 견인하는 사회적 의미까지도 더하게 되었다. 1968년부터 1995년까지 여름철 방문객 평균 증가율은 3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 3 : 생태교통과 혁신

Theme 3 : EcoMobility and Innovation



혁신은 어떤 사업에서나 필요한 개념이다. 혁신이 결여되면 사업은 어려움을 겪는다. 혁신은 제품의 디자인, 정책의 실현, 실행을 위한 계획, 프로젝트의 실행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다. 생태교통에서의 혁신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일이며, 또한 도시에서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혁신 사례 중 스톡홀름의 경우는 교통정체비용 부과에서 시작되었다. 스톡홀름은 자동차 사용자들에게 교통정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부과로 인한 세금은 대중교통과 '활동적인 이동수단' 사용을 촉진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 비슷한 사례로 독일의 본(Bonn)시를 들 수 있다. 본은 시내의 기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생태교통'을 권장하는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더 건강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에서는 트라이클로(세발자전거), 화물자전거, 벨로택시, 전기 자전거, 공공자전거, 2인승 자전거, 어린이용 트레일러 등 다양한 생태교통이동수단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또 다른 혁신을 보여주었다.

타이페이, 샌프란시스코, 파리에 있는 뉴시티파운데이션(New Cities Foundation) 사례들은 기술혁신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타이페이시의 경우는 택시 승객의 이동 특성을 파악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승객 이동 특성과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타이페이시의 택시는 평일 교통량의 12% 차지하고, 공차 운행으로 연간 연료소비량의 58%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대기아시아(Clean Air Asia)는 도시 내 보행친화 환경정도(Walkability)를 측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도시에서 보행친화도를 측정하고 다른 도시의 보행친화도와 비교하는 기능을 갖고있다.

「생태교통 수원 2013」기간 중 전시 된 노면전차시스템.
시민들이 시승체험을 하고 있다.



생태교통 실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메커니즘

- 현재 시행중인 생태교통 정책과 건설법규, 건강관리 등의 정책과 통합하기
- 생태교통이 영업이익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기
- 생태교통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통합된 주체 또는 기관 설립하기
- 제도적인 변화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 경제성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정책을 계획, 수행,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역량 구축하기
- 준비된 계획을 바탕으로 타 도시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과 정보, 그리고 자문 요청하기
- 각 부처와 교통부간의 협력적 정책 기획과 수행을 위한 정책결정 구조 만들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시민참여 시스템 시행하기

교통제도 관련해서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볼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호주의 애들레이드, 콜롬비아의 보고타, 덴마크의 오덴세 등이 생태교통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 도시의 일관된 비전, 도시교통과 관련된 기관통합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멕시코의 라고스모레노에서는 시민들이 ‘보행’을 주요 이동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도심에서 ‘주제가 있는 차 없는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트랜스밀레니오(Transmilenio, 버스급행시스템)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개발도상국도 생태교통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애들레이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지난 5년간 (2020년 까지 자전거 이용자 수를 600,000만 명까지 확대하는 목표 수립) 자전거 기반시설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하였다. 이는 생태교통을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치적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덴마크 도시들은 카쉐어링, 공용자전거 시스템, 대중교통, 친환경자동차 기술향상, 사용자 경험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합적으로 융합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교통을 실행하려면 특별한 제도와 재정적 메커니즘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도시들의 경우 미비한 상태이며, 핵심은 교통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우수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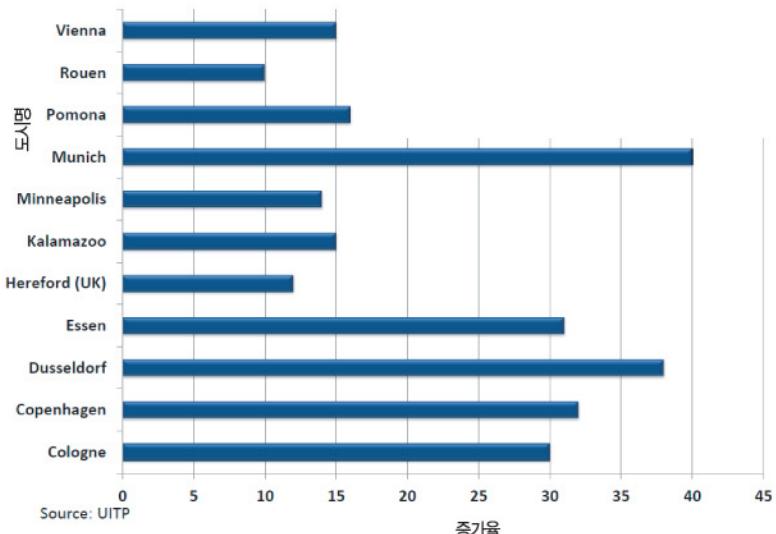
생태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자동차 기반시설 보다는 생태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산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만 자동차 중심의 사회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2750조 달러(US\$)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비용은 아태지역에 자전거기반시설 10억 km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이다.

**“교통은 재정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교통은 기술적인 이슈도 아닙니다.
교통은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로이드 라이트, 아시아개발은행, 필리핀 마닐라

보행자 전용구간 설치 이후 지역 상권의 수익 증가율



미래사회에서 생태교통 도시로의 중요한 진입조건은 리더십이다. 지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은 생태교통을 도시의 핵심의제로 부각시킨다. 생태교통은 실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은 “Walks the Talk”, 즉 생태교통에 대한 방안을 제안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메시지’가 영향력을 갖게 된다.

“**생태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와 좋은 지도자
그리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의 조합이 필요하다.**”

플로리안 레너트, InnoZ, 독일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리더스 라운드테이블과 세계시장회의 세션은 생태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리더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지방정부는 생태교통을 촉진하고 실현하는 최일선의 주체이다. 지방정부의 관점을 반영한 리더들의 발표는 그동안 도시에서 일구어 온 생태교통에 대한 성과는 자랑할 만한 것이며 동시에 이를 성취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리더의 개인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다양한 기관의 대표들도 도시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생태교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뿐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UN-HABITAT, UNCRD, UNESCAP과 같은 국제기구의 리더들은 생태교통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지, 유엔이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유럽자전거연합(European Cyclists' Federation)의 맨프레드 회장은 생태교통의 보다 강력한 파급력을 위한 방안으로 생태교통과 인권을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텔리전트 헬스(Intelligent Health)의 설립자인 윌리엄 버드 박사는 회의 참가자 모두 다 같이 공감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임을 강조하면서 “생태교통을 생각하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례 발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비전이 있는 리더십은 생태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리더십이 조직의 구조적 변화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거나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리더의 짧은 임기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런 내재된 장애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지속적 변화를 추동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태교통연맹 : EcoMobility Alliance」

「생태교통연맹」 도시인 창원, 수원, 볼더, 프라이부르크, 카오슝 등이 이번 총회에서 각 도시의 생태교통 사례를 발표하였다.

「생태교통연맹」은 파트너 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 독일국제협력단(GIZ),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함께 비동력 교통수단 워크숍을 주관하였다. 워크숍에서는 활동적 이동방식인 걷기, 자전거타기, 공용자전거시스템의 중요성과 다양한 이동방식, 대중교통과의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생태교통마을의 보행환경과 거리 여건을 모니터링 하고 학습내용을 기초로 참가자들의 도시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비동력 교통체계 수립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생태교통연맹은 도시들이
함께 모여 생태교통분야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완수 시장, 대한민국 창원시

수원선언 : 에코모빌리티 임펄스 말에서 행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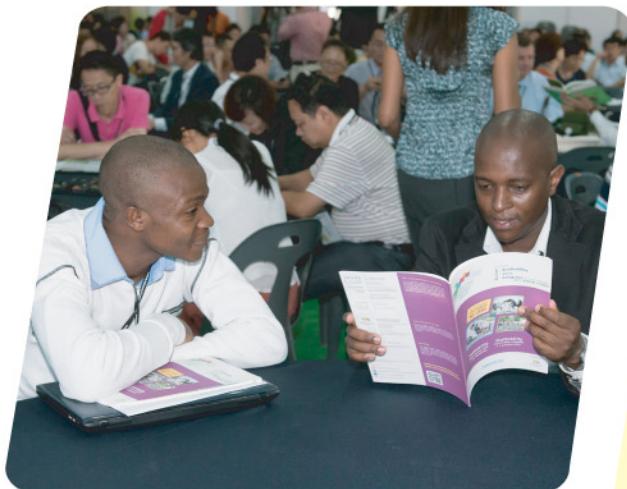
EcoMobility Impulse : Translating words into actions

수원시와 이클레이가 주최한 제2차 생태교통 수원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 대표와 도시계획담당자, 교통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수원에 모였다. 생태교통연맹 회원도시의 대표들도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수원 선언: 에코모빌리티 임펄스'를 채택하고 전 세계 지방정부들에게 이 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선언문은 전 세계 도시 대표들의 공약과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원시와 이클레이는 생태교통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생태교통에 대해 시민들과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을 것이며, 연말까지 수정하여 「수원선언 : 에코모빌리티 임펄스」를 생태교통 주요문서로 발행할 예정이다.

특별 세션 : 세계 청소년 대화의 장 - 생태교통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가치 있는 결정인가?

생태교통에 대한 세계 청소년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청소년들은 도시 교통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우리 세대에 생태교통이 실현된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청소년들은 미래 도시를 상상하면서 보다 큰 그림을 그렸다. 케냐,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 모인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토론내용을 토대로 '생태교통에 대한 미래세대 선언문'을 도출하였다. 선언문은 생태교통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염원과 현재 적절한 교통체계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미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다.

선언문의 원본은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수원선언 : 에코모빌리티 임펄스
EcoMobility Impulse의 목적은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아이디어와 원칙,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안내 지침으로써
전 세계 현존하는 도시와
신도시 모두가 녹색교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돋는 실천을 위한
선언이다"

모니카 짐머만, 이클레이 세계 사무부총장





ICLEI 세계사무국
Kaiser-Friedrich-Str. 7
53113 Bonn
Germany

ICLEI 한국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5번길 16 (장안동)
442-420



생태교통 총회팀
이메일 : ecomobility@iclei.org
웹사이트 : www.iclei.org/ecomobility2013
전화 : +49 (228) 97 62 99-00
팩스 : +49 (228) 97 62 99-01

이메일 : iclei.korea@iclei.org
웹사이트 : www.icleikorea.org
전화 : +82 (31) 255 3257
팩스 : +82 (31) 256 3257

생태교통 수원 2013 수원시 생태교통 추진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60 2층 (신풍동)
442-040
이메일 : ecomobilitysuwon@gmail.com
웹사이트 : emwf2013.suwon/go.kr
전화 : +82 (31) 228 3271

생태교통 총회(EcoMobility World Congress)는
2011년 10월 이클레이에 의해 시작된
지방정부 지원의 지속가능교통에 대한 국제포럼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iclei.org/ecomobility
www.iclei.org/ecomobility2013
www.ecomobility.org

2013 총회 파트너



www.iclei.org/ecomobility2013

Follow us:

- ecomobility@iclei.org
- @ecomobility_ #EcoMobility2013 #EcoMobilityFestival
- facebook.com/ecomobility.org
- www.ecomobilityfestival.org/blog

관련 인쇄물:

ICLEI—Local Goverments for Sustainability, 2013, EcoMobility World Festival 2013 Report

ICLEI—Local Governs for Sustainability, 2013, Suwon 2013 EcoMobility Impulse

ICLEI EcoMobility Case Studies: www.iclei.org/casestudies
Case Studies 156–165

판권: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보고서 EcoMobility 2013 Suwon Congress Report

본 인쇄물은 다음과 같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 ICLEI, 2013, EcoMobility 2013 Suwon Congress Report,
ICLEI—Local Governs for Sustainability, Bonn, Germany
- ICLEI, 2013,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보고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기획/편집

Santhosh Kodukula, Hana Peters and Monika Zaimermann
강정묵, 심현민, 박연희

사진 ICLEI, 2013

ICLEI—Local Governs for Sustainability e.V.
World Secretariat, EcoMobility Team
Kaiser-Friedrich-StraBe. 7
53113 Bonn / Germany
ecomobility@iclei.org
www.iclei.org/ecomobility2013

All rights reserved
© ICLEI e.V. 2013

본 인쇄물과 자료의 저작권은 이클레이에 있습니다. 내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사용하거나 인쇄할 경우
이클레이 세계본부 또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클레이는 본 인쇄물의 적극적인 배포와 비영리목적의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본 인쇄물은 재생필프를 활용한 친환경 백지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